

사회지도층 신뢰도 15%↓ '바닥 수준'

성인남녀 1천500명 설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과 정치·언론인 등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15.8%로 작년 17.1%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12.6%가 사회지도층에 속한다고 보고 지도층과 관련해 도덕성(40.5%)과 권력(36.1%)을 떠올렸으며 61.8%는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이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지도층 중 24.4%만 청

90% "지도층 부패 처벌 관대"

"책임감 부족·재량권 남용"

렴하다'고 답했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7.9%를 차지했다.

사회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를 실천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이들이 병역·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실천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책임감 부족'(35.3%), '재량권 남용'(29.3%), '공정하지 못한 점'(27.5%)을 꼽았고 응답자의 90.8%는 지도층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3.2%가 지도층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정한 법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약품 분야 '맞불' 신경전

한미 FTA 5차 협상 첫날

美, 쇠고기·車 전방위 공세 농업분야 민감품목 논의 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현지시간)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한국은 갈 길이 멀다"면서 노골적으로 의약품 분야에 불만을 표시하자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실망했다는 말이 실망스럽다"고 맞불을 놓는 등 양측 협상단이 날카롭게 대치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측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민감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낮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조정화 방안과 관련, "미국의 우려와 제의가 반영되지 않은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 개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규제 등 입법 과정의 투명성 문제이며 이 점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 의회의 구도 변화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동차와 의약품, 쇠고기 등에 대한 공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날 열린 분과회의는 농업, 원산지, 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등 9개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이날부터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를 개시, 대두,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량작물 분야를 둘러싼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는 FTA 협상 반대 미국 워싱턴 투쟁단이 협상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측은 예외없는 양허(개방)라는 원칙하에 우리측 '기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쌀은 논의되

지 않았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은 둘째날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분야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에 관련된 것이지, 쌀조각 등 검역관련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직 치안감 '세신' 인수 개입 의혹

검찰 제이유 그룹 로비 수사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5일 제이유그룹이 세신인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모(50) 치안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박 치안감이 세신의 인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세신의 주식 인수에 관여했던 정모(43) 변호사를 불러 인수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박 치안감이 인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박 치안감은 제이유 측에 세신의 지분을 다량으로 판 모 업체 사장, 변호사 정씨 등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 등에 비춰 세신 인수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카지노도 競車도 안된다면



홍행기

사회2부 차장

F1이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틀러 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안락의 악재가 겹치면서 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동이 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F1은 지난달 이 사업의 실무를 총 지휘했던 이근경 정무부지사가 갑작스럽게 사퇴함으로써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F1특별법에 넣느냐 마느냐를 갑론을박을 벌였던 경차(競車)사업도 예외엔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발표되었다가 며칠 새 '유보하는' 쪽으로 슬쩍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더니 최근엔 전남도와 손잡고 F1을 추진하고 있는 한 민간회사의 신뢰성과 F1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면서 F1 자체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까지 비치고 있다.

F1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J프로젝트 출발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애초 J프로젝트에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로 계획했던 것은 F1이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였다. 내국인 카지노 개설은 기업들의 투자 및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J프로젝트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남도는 때마침 불어닥친 '바다이야기' 파문 속에 '사행성' 시비여론이 일자 의지를 접었다.

카지노를 놓쳐버린 전남도는 대신 '경차'에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싶은 수익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경차'는 카지노보다 사행성이 적어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끝내 경차도 사행성을 이유로 지난달 말 F1특별법(안)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로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던 카지노와 경차가 모두 불발됨으로써, J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카지노와 경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카지노는 잠정 유보한 것일 뿐 다시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한다' '경차도 F1대회가 열리는 2010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지노와 경차라는 보물창고를 잃어버린 전남도의 곤혹스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익성과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지만,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사행성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해온 전남도의 정책은 분명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사람이 찾지 않는 J프로젝트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J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redplane@kwangju.co.kr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모임
- 상견례
- 직통세미나/수업/연회/모임
- 불판치
- 고척면

12인승 차량모임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여준 보일러 특별보급을 신청하신 분께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셨는지
- 확인이 없어서 신청하는 분
- 기존 신청하셨지만 설치완료
- 신청서류, 차액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06.12.05 ~ 2006.12.31

신청처: 010-9469-9373 (062)673-4981

ANTIQUE FURNITURE GAUGEDING

100% 맞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 3인용 소파: 1,200,000원
- 1인용 소파: 400,000원
- 2인용 소파: 700,000원
- 3인용 소파: 1,000,000원

1층 연회기구관본점 (062)855-8820